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의 활용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과 경험*

장 유 진[†]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의 활용에 대한 전문상담자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 관련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최소 5년 이상의 청소년상담 경력이 있는 12명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이전 상담경험, 수퍼비전이나 서적을 통한 간접적인 학습경험 및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개인상담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의 활용을 중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 면담과 관찰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서 나왔고, 내담자와의 협동 작업과 심리검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도 전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악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상담목표와 전략에 활용한다는 진술이 지배적이었고, 내담자의 내적 자원을 지지하거나, 내담자에 대한 주변인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활용하다는 응답도 전형적, 변동적 수준으로 각각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강점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상담과정 및 성과 측면에서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효과성 결정 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담자 교육과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강점과 자원, 청소년, 개인상담, 합의적 질적 연구

* 이 논문(저서)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2402).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유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E-mail : nowiamhere@wku.ac.kr

상담학의 태동기부터 내담자의 강점(strengths)과 자원(assets)을 활용하는 것은 상담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져 왔다(Meara & Myers, 1999; Gelso & Woodhouse, 2003). 특히 강점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긍정적 과정(positive processes)은 문제를 예방하고 인간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Lopez, 2008). 또한 상담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은 예방과 발달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에서도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수용력을 향상시키고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점과 자원을 평가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작업임을 인정해 왔다(Scheel et al., 1999). 따라서 많은 상담학자들(예, Bernard, 1991; Chazin, Kaplan, & Terio, 2000; Conyne, 2004; Kaczmarek, 2005; Romano & Hage, 2000)은 강점 중심의 접근(strength-based approaches)이 상담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강점 중심의 상담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실제로 상담에 지침이 될 만한 이론과 모델, 개입방법들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Gerstein, 2006; Keyes & Lopez, 2002; Lampropoulos, 2001; Lopez & Edwards, 2008; Seligman, 2002; Smith, 2006; Walsh, 2003; Wong, 2006). 기존 심리학의 초점이 지나치게 증상과 문제와 같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해 긍정적인 정서(positive emotions)와 긍정적인 성격 특질(positive character traits)과 같은 인간의 긍정적

인 측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긍정심리학 운동(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의 영향은 교육과 상담 분야에 빠르게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심리학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모델과 실천적 개입방법들이 개발되었다(Magyar-Moe, Owens, & Scheel, 2015; Watersa, 2011).

긍정심리학 운동에서 제시된 개념적 틀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다양한 종류의 긍정심리학적 상담개입들이 개발되어 실시되어 왔으며,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들도 점차 축적되어 가고 있다(임영진, 2010; Lopez & Edwards, 2008; Mongrain & Anselmo-Matthews, 2012). 이러한 상담개입들은 대부분 모듈화된 프로그램 형태의 집단상담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프로그램화된 집단상담의 형식을 취하는 개입방법들은 특별한 장애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정상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의 목적으로 실시되거나 동일한 문제를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환경, 호소문제 등을 바탕으로 지극히 개별화되어 진행되는 개인상담에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이러한 개입방법들을 적용한 개인상담에 대한 효과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없었다. 내담자의 강점 활용을 중시하는 맥락주의 상담 모델과 구성주의적 관점(예, 해결중심상담)이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Murphy, 2008; Scheel, Davis, & Henderson, 2013)에서 개인상담에서의 강점 활용에 관한 연구는 개인상담 맥락에서 활용되는 긍정적 과정을 조명함과 동시에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보급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점 중심의 개인상담적 개입

강점 중심의 집단상담적 개입에 대해서는 이론적 모델과 함께 실천적인 방법론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온데 반해, 개인상담적 개입에 대해서는 몇몇의 이론적 모델만이 제시되어 왔다. 이는 개인상담 자체가 매우 개별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개입들을 표준화하기가 어렵고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의 평가와 활용을 강조하는 개인상담 이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Scheel et al., 2013). 강점 중심의 개인상담적 개입을 위해 새롭게 제안된 이론적 모델의 예로 Wong(2006)의 강점 기반 상담(strength-centered therapy) 모델을 들 수 있다. 그는 내담자의 성격 강점과 덕성을 계발시키기 위한 상담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명료화(explicitizing) 단계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확인하는 작업에 해당되며, 두번째는 비전 설정(envisioning) 단계로 앞으로 개발해야할 영역을 밝히는 작업을 포함한다. 세번째는 힘 북돋우기(empowering) 단계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강점을 적용해 보도록 격려하는 과정이며, 마지막은 발전시키기(evolver) 단계로 내담자의 강점을 일상생활로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포함한다.

Gelso와 Woodhouse(2003)는 개인상담의 두 가지 측면 즉 개념화 과정(conceptualization process)과 개입 행위(enactments)로 나누어 어떻게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들은 내담자의 강점을 개념화하는 방법으로 (a) 내담자 강점에 관한 질문하기(예, “내담자가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잘 살고 있나?”, “내담자의 심리적 자원은 무엇인가?”), (b) 치료적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강점(예, 자발성과 신뢰, 치료적 관계와 작업동맹을 맺는 능력) 파악하기, (c) 내담자의 약점에 숨겨져 있는 강점(예, 표현력이 있는 히스테리성 성격 특징, 고통에 대한 방어기제로서의 유머는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켜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줌) 찾아내기, (d) 내담자의 강점과 문화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등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 또한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입 행위로는 (a) 내담자의 강점을 내담자에게 말해주기(예, 내담자가 보이고 있는 진전에 대해 언급하기), (b) 긍정적인 재구조화(예, 내담자의 약점을 한때는 강점이었던 것으로 설명하기), (c) 방어과정에 숨겨있는 강점에 주목하기(주지화는 명료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해 줌), (d) 문화적 맥락에서 강점 해석하기 등을 언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강점 중심의 개인상담 모델들은 실천적 개입방법보다는 상담전략에 대한 이론적 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모델을 개인상담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모델들은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어떻게 탐색하고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발견된 강점과 자원을 어떻게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에서의 강점 중심 접근

청소년기는 실험과 위험감수 행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시기(Berk, 2004)이며, 일탈행위, 학업실패, 중독 등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발달단계(Kazdin & Weisz,

2003)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담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깊게 뿌리내리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다(Kaczmarek, 2005). 발달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놓여져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그들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 상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자발성의 문제는 강점에 초점을 두는 상담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킨다. 실제로 청소년 내담자는 성인 내담자와 달리 상담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이혜성 등, 1996), 학교 상담실이나 상담기관에 자발적으로 찾아가기 보다는 부모나 학교 교사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양미진, 이영희, 2006; Brodsky, 2011). 이러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에게 문제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상담자와 상담과정에 대해 비협조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조장할 수 있으며(김혜숙, 공윤정, 박한샘, 1996), 초기 관계형성에 실패하여 조기 종결되는 경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ooney, 1992). 이런 측면에서 강점과 자원 중심의 상담과정을 통해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목표를 내담자의 관점에서 재설정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비자발성의 문제 이외에도 상담학자들은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 내담자에게 자신을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자”(Keyes & Lopez, 2002)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어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상담에서 발견한 강점과 자원이 역경(adversity) 상황에서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Werner & Smith, 1992). 아울러, 청소년의 위기문제에 얽혀있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중심적인 개입은 효과적이지 못하며(McWhirter et al., 1998; Kaczmarek, 2005), 강점과 자원의 활용을 통한 최적의 발달(optimal development)을 도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Kaczmarek & Riva, 1996; Wagner, 1996).

강점 기반 접근의 중요성과 함께 성인상담 모델과는 차별화된 상담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Weersing & Brent, 2003), 청소년을 위한 강점 중심의 상담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Smith(2006)는 의미치료(logotherapy), 해결중심상담,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 긍정심리학, Maslow의 동기 및 욕구이론 등의 다양한 관점들을 통합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10단계의 상담모델을 제안하였다: (a) 치료적 동맹 형성하기, (b) 내담자의 강점 확인하기, (c) 호소문제 평가하기, (d) 희망 고취하기, (e) 해결책 형성하기, (f) 유능감 기르기, (g) 힘 북돋우기(empowering), (h) 의미형성(meaning making)과 재구조화(reframing)를 통해 변화하기, (i) 적응유연성(resilience) 기르기, (j) 평가 및 종결하기. 이와 같이 Smith는 힘 북돋우기, 적응유연성 기르기, 격려하기, 희망 고취하기 등과 같은 핵심적인 강점 기반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Whitmarsh와 Mullette(2009)도 복잡한 발달과업을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SEARCHing)”한다는 의미로 청소년 상담을 위한 SEARCH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은 (a) 다양한 삶의 영역별로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탐색하기, (b) 강점을 계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 (c) 강점, 긍정적 자원, 계속된 성장을 위한 목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자각내용을 정리하면서 종결하기와 같은 3단계의 상담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모델을 제안하면서 Whitmarsh

와 Mullette는 청소년의 삶의 영역을 자기(self), 교육 및 진로, 활동, 관계, 지역사회 및 문화, 가정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확인된 내부적, 외부적 강점과 자원은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잡한 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 역시 성인상담 모델과의 차별성이 모호하며, 강점 기반의 상담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Sapp(2006)은 Smith(2006)의 모델이 위협감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내담자가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인지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판단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지, 또한 이상주의와 변화주도 욕구로 인해 부모, 교사, 권위적 인물, 더 크게는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친사회적인 행동과 사회정의를 지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상담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앞서 제시된 2가지 모델 모두 실제적 유용성을 검토한 실증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그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인상담 맥락에서의 상담자의 강점 활용에 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국내에서는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의 강점 요인과 강점 활용 방법을 비교한 권혜경과 이희경(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부로 상담자의 강점 활용 방법들을 개략적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

고 있지만, 청소년 상담과 개인상담에만 국한시켜 자료수집을 하지는 않았고 강점 활용과 관련된 상담자의 인식과 경험을 충분히 그려내는 데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 내담자의 강점 활용에 관한 상담자의 경험과 인식을 검토한 국외 연구로는 대학상담센터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8명의 미국 상담자들 대상으로 수행한 Scheel 등(2013)의 현상학적 연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 개인상담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점 파악 및 활용 방법, 강점 활용의 치료적 효용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문화적 차이가 상담과정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Wong, 2006)과 성인 상담과 청소년 상담에서의 실제적 수행의 차이(Weersing & Brent, 2003)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실증적 증거 수집을 통해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구체화시키고,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강점 중심의 상담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맥락적인 요인(contextual factors)에 대한 탐색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강점 중심의 상담 과정이 어떤 내담자에게 효과적이지만 어떤 내담자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은지, 상담의 전체 과정 중 어떤 타이밍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지, 강점 기반 상담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맥락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과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강점 중심의 상담이 모든 상황이나 조건, 혹은 어떤 종류의 내담자에게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중대한 인식의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개인상담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개발되고 실시되어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진 강점 중심의 상담적 개입은 대부분 구조화된 프로그램 형태의 집단상담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개인상담 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개입전략과 방법에 대해 직접적인 시사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상담을 위해 제안된 강점 중심의 상담모델들(Smith, 2006; Whitmarsh & Mullette, 2009)은 개념적인 틀만 제공해 줄 뿐 청소년 상담자들이 실제로 참고하고 적용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모델의 실제적 유용성을 검토한 선행연구 역시 수행되지 못했다. 셋째, 청소년 상담에서 강점 중심의 접근이 핵심적인 상담과정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뚜렷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상담자들이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어느 정도로 또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경험은 어떤지 등에 대해 선행연구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 Hill, Thompson, & Williams, 1997)를 통해 탐색하였다. 청소년 개인상담에서의 강점과 자원 활용에 관한 실증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은 상담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주요한 주제들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Creswell et al., 2007). 본 연구는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의 활용에 대한 전문상담자의 인식과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핵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방 법

연구 참여자

개인상담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의 특성상 인터뷰 대상자는 풍부한 청소년 상담경험을 토대로 주제에 대해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급 상담자로, 강점과 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선발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는 국가 혹은 민간 상담자격증 중 (a)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b) 청소년상담사 1급, (c) 전문상담교사 1급 중 최소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였다. 둘째, 청소년을 주요 내담자 집단으로 하는 중고교 학교상담실, Wee 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비롯한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센터, 청소년 교정기관 등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청소년 상담 경력(대학 혹은 대학원에서의 실습 및 인턴 기간 제외)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셋째,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기준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참여자 모집 안내문에 명시하였다. 참여자 모집을 위해 상담관련 학회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의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수는 Hill 등(2005)의 제안에 따라 총 12명으로 하였다.

12명의 인터뷰 참여자 중 10명은 여성, 2명이 남성이었다. 참여자 연령은 30대 중반에서 50세에 걸쳐져 있었는데,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었다(평균 39.5세). 참여자 모두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석사 4명, 박사과정 5명, 박사 3명으로 수준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청소년 상담경력 면에서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4년까지의 범위를 보였는데(평균 7.33년), 참여자들은 중고교 WEE class 혹은 상담실 5명, 시립 혹은 국립 청소년상담기관 5명, 사설 상담센터 1명, 병원 1명에서 보듯 대부분 학교 내의 상담실이나 지역의 청소년상담시설에서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전문상담교사나 청소년상담사 혹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참여자들을 분류하면 전문상담교사 1급 6명, 청소년상담사 1급 4명, 상담심리사 1급 2명으로 나타났다.

연구팀과 감수팀

연구팀은 상담 전공 교수인 본 연구자와 다수의 CQR 분석 경험과 10년 이상의 청소년 상담 및 슈퍼비전 경력을 가진 상담 전공 교수 1인으로, 감수팀은 연구팀에 준하는 CQR 분석 경험과 청소년 상담 및 슈퍼비전 경력을 가진 상담 전공 교수 2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팀은 인터뷰 질문지 작성과 인터뷰 실시, 자료

분석 및 해석을 담당하고, 감수팀은 자료분석 결과 및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연구팀에게 피드백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터뷰 진행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전담하였다.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인터뷰 질문지는 강점 중심의 청소년 상담에 관한 문헌의 고찰과 연구자들의 전문적 경험을 토대로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개발된 질문지는 외부 감수자 2인에게 보내져 피드백을 받았다. 감수팀은 인터뷰 질문지 문항 중 한꺼번에 여러 내용을 묻는 대신 하나의 내용을 묻도록 하고, 다소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문항은 보다 쉬운 말로 풀어써 표현할 것을 권하였다. 이러한 피드백을 수용하여 연구팀에서는 몇몇 문항에 수정을 가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상담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관계형성, 상담과정, 상담성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상담과정과 상담성과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2개의 문항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개인상담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어떤 맥락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가 용이하도록 '개인상담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로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감수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한 후,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1인을 대상으로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인터뷰의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하여 '강점과 자원을 중시하게 된 계기'와 '강점과 자원 활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장애요인'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비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 질문지가 완성되어 본 인터뷰에 사용되었다. 최종 질문지는 (a) 강점과 자원의 활용을 중시하게 된 계기, (b) 강점과 자원 파악 방법, (c) 강점과 자원 활용 방법, (d) 강점과 자원 활용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e) 강점과 자원 활용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f) 강점과 자원 활용의 효과성 결정 요인, (g) 강점과 자원 활용 시 어려움 혹은 장애요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를 실시하기에 앞서 모집된 인터뷰 참여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 동의를 요청하였다. 참가 동의 의사를 표현한 참여자의 일정에 맞추어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평균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음성녹음기를 통해 녹음되었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각각의 인터뷰 자료에는 사례번호가 부여되었고, 부여된 사례번호에 따라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CQR을 사용하였다. CQR은 개방형 질문과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참여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주관성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시키기 위해 연구팀과 감수팀을 두어 자료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다수의 관점을 반영하며,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팀 중심(team-

based)의 질적 분석 기법이다(Hill et al., 1997).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팀은 인터뷰 질문지의 문항을 바탕으로 영역(domain)의 초기목록(start list)을 생성한 후, 연구자 2명이 각자 인터뷰 사례를 정독하면서 초기목록의 영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논의를 거쳐 7개의 최종 영역을 산출하였다. 둘째, 생성된 영역별로 모든 사례를 정리한 후, 연구자 2명이 독립적으로 사례별 각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요약 반응을 작성하였다. 요약 반응을 바탕으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핵심개념(core ideas)을 구성하였다. 셋째, 연구팀 내에서 도출된 영역과 핵심개념은 감수팀에게 보내져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 2명은 각각 영역과 핵심개념이 원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논의를 거쳐 합의된 피드백 내용을 연구팀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팀은 도출된 영역과 핵심개념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넷째, 연구팀 내 연구자 2명은 각자 교차분석(cross-analysis), 즉, 사례들 간의 유사한 핵심개념을 범주화하여 범주에 이름을 붙이고 각 범주가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표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Hill 등(2005)의 권유에 따라 도출된 범주가 모든 사례 혹은 1개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 나타날 경우(11~12 사례)는 “일반적(general)”, 절반 이상의 사례에 나타나는 경우(6~10사례)는 “전형적(typical)”, 절반 미만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1~5사례)는 “변동적(variant)” 범주로 각각 분류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역시 감수팀에 보내져 검토되었는데, 감수팀에서는 연구팀이 분류한 몇몇 범주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피드백은 대부분 수용되어 수정에 반영되었다. 마지막 분석 과정으

로 연구팀에서는 총 12개의 인터뷰 사례 중 무작위로 2개를 교차분석에서 제외하여 안정성 체크(stability check)를 수행하였다. 안정성 체크 결과, 교차분석에서 제외된 2개의 사례에서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거나 빈도가 두드러지게 변화하지 않아 분석결과가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결과의 신뢰도(trustworthiness)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수행 환경에 따라 상이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상담 장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자료분석 단계별로 외부 감수팀의 피드백을 구함으로써 분석 및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자의 개인적 가치, 사전경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등이 자료분석 및 해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팀에 속한 연구자 2명은 수시로 이러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 과

CQR 분석 결과, 12명의 전문상담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7개 영역, 23개의 범주, 46개의 하위범주가 최종 도출되었다. 각 영역별로 나타난 범주 및 하위범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점과 자원 활용을 중시하게 된 계기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 활용을 중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a) 상담 경험, (b) 간접 경험, (c)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고려라는 3개 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1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상담 경험

1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상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청소년 상담에서 강점과 자원 활용을 중시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위범주별로 살펴보면, 강점과 자원을 활용했을 때 상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한 이후로 강점 중심의 상담에 전념하게 되

표 1. '강점과 자원 활용을 중시하게 된 계기' 영역의 범주와 사례 빈도

범주	하위범주	사례 빈도
상담 경험		일반적(11)
	성공적인 상담 성과	전형적(10)
	문제 중심 상담접근의 한계	전형적(7)
	내담자의 외적 자원 부재	변동적(3)
간접 경험		전형적(8)
	수퍼비전 혹은 강의	전형적(6)
	상담관련 서적	변동적(3)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고려		변동적(4)

었다는 보고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7명의 참여자들은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교정 혹은 제거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거듭 실패하는 경험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3명의 참여자들은 강점은 내담자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자원은 내담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지지적인 환경 요인으로 각각 구별하여 개념화하면서 자원이 지나치게 열악한 내담자의 경우에는 내면적인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계속 들었고 내가 되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많이 느끼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아이들이 변화 되어지는 게 빠르고 아이들도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요. (성공적인 상담 성과, 참여자 3)

비행이면 비행, 학교 안 가는 거면 학교 안 가는 거, 그런 거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어떻게 중단을 시켜야 되나 이런 쪽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봤을 때 별 효과가 없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거는 밖에서도 이미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든 교사든 가까운 친척이든 보는 어른이면 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문제 중심 상담접근의 한계, 참여자 10)

간접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 상담

자들은 직접적인 상담 경험 외에 간접적인 학습을 통해서 강점과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퍼비전을 받거나 상담관련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참여자들의 반응이 전형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났다. 수퍼비전 경험을 언급한 참여자 중 1명은 수퍼바이저로서의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강조하는 수퍼바이저의 태도를 통해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배우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수퍼비전과 상담이 일종의 병행적 과정(parallel process)임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주었다. 상담관련 교재나 서적을 통해 강점 활용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내용도 변동적인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청소년 사례 수퍼비전 때나 가면은 늘 그런 부분들은 붙어 있었던 거 같아요. 코멘트나 교육이나 이런 게. 왜냐면 청소년 애들 같은 경우는 혼자 그래도 아직은 조력을 받아야 될 때고... 안내를 받아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주는, 안내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 [중략] 자원 활용의 중요성은 늘 수퍼비전이나 강의나 이런 데서 들었죠. (수퍼비전 혹은 강의, 참여자 5)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고려

4명의 상담자들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때문에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특히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이 상담자들은 청소년의 인지적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찰에 바탕을 둔 역동적인 접근이 어렵고, 기관의 정책

으로 장기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강점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명의 상담자는 청소년 상담은 결국 진로탐색이나 진로의사결정이라는 발달적 과제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강점을 바탕으로 한 상담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점과 자원 파악 방법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은 (a) 초기 면담과 관찰, (b) 내담자와의 협동 작업, (c) 심리검사, (d) 내담자의 주변인 활용, (e) 상담자 개인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파악과 같이 5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범주로 나뉘어졌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초기 면담과 관찰

2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이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탐색하기 위해 접수면접

이나 첫회 상담과 같은 초기 상담과정 동안 이루어지는 면담과 관찰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내담자에게 직접 강점과 자원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보다 면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내담자의 내적 자원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범주는 내담자와의 공동 작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에 제시될 '내담자의 협동 작업'이라는 범주와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서 접수면접지에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하나 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는데 거기에 정말 여러 개의 예를 들어 표시하는 친구가 있을 때, 정말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많구나,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점을 그때부터 시작을 계속 하면서 학생의 언어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가끔 언어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에도 계속 그거를 찾으려고, 그 학생의 표정부터 저한테 하는 말투나 요런

표 2. '강점과 자원 파악 방법' 영역의 범주와 사례 빈도

범주	하위범주	사례 빈도
초기 면담과 관찰		전형적(10)
	내담자와의 협동 작업	전형적(8)
심리검사	질문을 통해 내담자와 함께 탐색	전형적(7)
	강점 찾기 과제 부여	변동적(4)
내담자의 주변인 활용		전형적(7)
		변동적(5)
상담자 개인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파악		변동적(4)
	단점을 장점으로 뒤집어 보기	변동적(2)
	부정적 상황에 내재하는 긍정적 의미 탐색	변동적(2)

것들 모두를 포함해서 강점을 찾으려고...
(초기 면담과 관찰, 참여자 2)

내담자와의 협동 작업

내담자가 가진 강점과 자원을 주제로 내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다는 진술 내용도 전형적이었다.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강점과 자원을 물어본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상담에 오는 대부분의 청소년 내담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상담자가 의도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직접적인 질문을 한 후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간접 질문이나 강점과 자원 파악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내담자와 함께 찾아가는 시도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응답보다 빈도 면에서는 드물게 나타났지만, 과제를 부여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자산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발견해 보도록 유도한다는 응답도 4명의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다.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물어보면은 일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저도 상담초반에는 이렇게 종이 펼쳐놓고 네 강점을 써봐라 뭐 이런 것들 몇 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 같구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 못 한다 그러면 역으로 다른 것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보자, 직접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세션도 필요한 경우는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질문을 통해 내담자와 함께 탐색, 참여자 8)

심리검사

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검사에 의존한다고 응답한 7명의 참여자들은 검사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심리검사를 활용함으로써 간접적인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상담자들이 강점과 자원 파악에 초점을 둔 검사를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심리검사(예, 지능검사, 진로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내담자의 단점은 물론 강점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주변인 활용

간접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상담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목적으로 청소년 내담자의 주변인, 예를 들어, 교사나 부모 등으로부터 내담자의 장점에 대한 정보나 단서를 얻는다는 응답도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언급한 상담자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상담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학교 장면은 상담자 외에도 내담자를 잘 알고 있는 교사나 학생들이 다수 있으며 때때로 학부모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변인 활용을 강조한 참여자들은 다각적인 시각에서 얻어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에 대한 정보가 내담자와의 면담에서 얻어질 수 있는 정보보다 더 풍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가 주요한 문제 학생이라고 개를 알

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어떻게 나눌 때가 있어요. 개 어때요? 수업시간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그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내용 중에서 얘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오히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워낙 관찰도 많이 하셨고 수업시간에서 결국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부모님하고도 직접 대화를 하시는 분은 사실 담임 선생님이 더 많고 부장 이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내담자의 주변인 활용, 참여자 4)

상담자 개인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파악

4명의 상담자들은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당면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내담자가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바라보는 부정적인 측면의 반대편을 바라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특성도 사실 다른 상황

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며, 좌절되고 절망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경험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교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힘들었던 좌절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딱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중략] 그래도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거 같은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진로의 범위 같은 거,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좀 이런 좌절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힘들었던 건 맞지만 너한테 성장하는데 아팠던 것만은 아닌 거 같다고 얘기를 하고... (부정적 상황에 내재하는 긍정적 의미 탐색, 참여자 4)

강점과 자원 활용 방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방법을 통해 파악된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실제 상담에

표 3. '강점과 자원의 활용 방법' 영역의 범주와 사례 빈도

범주	하위범주	사례 빈도
상담목표와 전략에 활용	상담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에 활용	일반적(11)
	강점과 자원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격려	전형적(7)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당면문제 재정의	변동적(5)
		변동적(2)
내담자의 내적 자원 지지	강점과 자원에 대한 언어적 지지	전형적(7)
	단점의 강점화를 통한 내담자의 관점 변화 유도	변동적(5)
	과제를 통해 내담자의 강점을 강화시킴	변동적(4)
		변동적(3)
주변인의 관점 변화 유도		변동적(4)

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a) 상담목표와 전략에 활용, (b) 내담자의 내적 자원 지지, (c) 주변인의 관점 변화 유도라는 3가지 범주와 6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자세한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담목표와 전략에 활용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파악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상담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위범주별로 보면, 우선 내담자와 상담목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강점 활용을 목표 진술문 속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응답이 전형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주제를 언급한 참여자들은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 강점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한다고 진술하였다. 5명의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이 추상적인 관념 수준에서 자신이 가진 자산을 인식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경험 수준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담자가 실생활에서 자신의 강점을 적용시켜 보도록 격려한다고 보고하였다. 2명의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욕구나 바람의 내용을 담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재정의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에 의지를 갖도록 유도한다고 말하였다.

목표 설정 하는 데도 강점 찾고 자원 찾아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중략]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은 실제적인 문제해결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바로 문제해결로 들어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냥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부딪치는 거니까 굉장히 힘

들거고, 자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도 강점 찾는 작업을 하고 그 자원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전략을 세우고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상담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에 활용, 참여자 8)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글을 잘 쓰는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가 글을 잘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중략] 그래서 이 아이를 구체적으로 이런 공모하는 데 나가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거기서 입장을 한 거예요. 그 강점을 가지고 입장을 하더니 애가 자신감이 생기고 학교생활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강점과 자원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격려, 참여자 12)

내담자의 내적 자원 지지

본 연구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 상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견한 내담자의 강점을 근거로 내담자를 지지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자원을 인지하여 주체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하위범주를 보면, 이들은 내담자의 자원에 대해 언어적인 지지를 하거나, 내담자가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담자의 관점 변화를 유도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3명의 참여자들은 강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여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을 때 칭찬이나 격려를 해 줌으로써 내담자가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깨

담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뭔가 변화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걸 상담자가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성인들도 중요하긴 한데 청소년들은 조금 더 중요하고 이게 왜 또 중요한지를 내담자한테 설명을 잘 해 주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중략]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주고 언어화시켜서 아이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왜 너한테 중요한지를 저는 쉬운 말로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점과 자원에 대한 언어적 지지, 참여자 11)

예를 들면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상도 많이 하고 잡념이 많고... 근데 그 공상이나 잡념은 가정과 관련됐던 불안 이런 거였기도 했지만 자기세계가 구축되어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아이의 어떤 사고의 폭,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는 항상 그 상담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던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넌 누구보다 생각이 깊은 아이고 두려운 현재지만 나중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단점의 강점화를 통한 내담자의 관점 변화 유도, 참여자 7)

주변인의 관점 변화 유도

일부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의미있는 타인들(부모, 교사, 친구 등)이 내담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내담자의 강점에 대한 정보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내담자의 내적 자원 지지’라는 범주가 내담자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인데 반해, 이 범주는 주변인의 관점 변화에 초점을 둔다. 참여자들은 청소년 상담에 있어 내담자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환경적 요인, 특히 내담자에 대한 주변인들의 태도를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에서 (a) 상담관계 형성 촉진, (b) 내담자의 시각 변화 유도, (c) 효과적인 상담전략 구축에 기여와 같은 3가지 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가 등장하였다. 표 4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상담관계 형성 촉진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어 상담을 진행한 것이 특히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는 데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하였다. 그들은 청소년 개인상담은 대부분 교사나 부모의 의뢰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저항과 방어를 보이기 쉬운데, 이때 내담자의 욕구나 바람, 강점 및 자원에 초점을 두어 대화를 진행하게 되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롭고 친밀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표 4.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영역의 범주와 사례 빈도

범주	하위범주	사례 빈도
상담관계 형성 촉진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 촉진	일반적(11)
	내담자의 상담 동기 향상	일반적(11)
	내담자에게 긍정적 관계 경험 제공	전형적(6)
		변동적(5)
내담자의 시각 변화 유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형성	전형적(7)
	변화에 대한 희망 고취	변동적(4)
		변동적(4)
효과적인 상담전략 구축에 기여		변동적(2)

시작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유사하게 강점 위주의 상담이 내담자의 상담동기를 강화시킨다는 의견도 절반의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유능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개방을 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상담 외적인 장면에서는 늘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던 청소년 내담자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언급해 주며 실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지지, 격려해 주는 상담자를 통해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게 되어 상담 관계에 잘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도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났다.

너 이거 되게 잘하나 보다, 초기에는 되게 관계 맺을 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아이한테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자체가 애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거 같고, [중략] 나를 좋게 봐주는 누군가 어른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애가 상담실이나 저한테 왔을 때 더 편한 마음으로 저한테

오게 되고 약간 방어를 많이 해제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중략]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요.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 촉진, 참여자 4)

내담자의 시각 변화 유도

4명의 참여자들은 강점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였고, 그 결과 변화에 대한 희망도 생겨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우선, 참여자들은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책망하거나 좌절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자의 지속적인 강점과 자원 탐색 노력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단점이나 문제가 장점이나 자산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통제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인식함으로써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어 스스로 당면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된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강점을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자기가 아 내가 이런 힘이 있으니까 변화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이나 혹은 동기나 이런 것들, 좀 더 나아지고 할 수 있겠다, 뭐 나아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변화에 대한 희망 고취, 참여자 1)

효과적인 상담 전략 구축에 기여

마지막으로 2명의 참여자들은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주제는 앞서 기술한 바 있는 ‘강점과 자원의 활용 방법’ 영역에서 동일하게 도출된 바 있는데, 상담 전략 구축 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실제 상담과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 활용이 최종

적인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의 반응은 (a)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 (b) 상담자의 자긍심 향상과 같은 2가지 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내담자의 긍정적 자아상 형성

모든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을 중심으로 진행한 개인상담이 결과적으로 내담자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10명의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 상황과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찾게 된 점을 가장 두드러진 상담성과로 꼽았다. 9명의 상담자들은 내적 자원에 초점을 둔 상담이 청소년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상담자들은 내적 잠재력 발견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자원을 얻게 되어 학교생활과 같은 실생활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나아지고 보다 잘 적

표 5.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영역의 범주와 사례 빈도

범주	하위범주	사례 빈도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	내적 자원과 잠재력 발견	전형적(10)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전형적(9)
	상담자의 자긍심 향상	전형적(8)
상담자의 자긍심 향상	상담자 자신이 느끼는 보람	전형적(7)
	상담자의 소진 예방	전형적(7)
	상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 향상	변동적(3)

응하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내담자가 강점과 장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상담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강점이 있다고 할 때 강하게 내담자가 인식하고 하면 상담자보다는 본인을 더 의지하고 강점을 더 집중해서 상담의 종결 이후에 학교생활, 사회생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쪽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내적 자원과 잠재력 발견, 참여자 9)

상담자의 자긍심 향상

강점과 자원 위주의 상담이 내담자 뿐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의 참여자들은 강점 중심의 개인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면서 상담자로서 상당한 보람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같은 수의 참여자들은 문제를 교정하거나 제거하려는 상담 접근을 취할 때는 빨리 지치고 자주 좌절감을 느끼곤 했는데, 내적 자산을 찾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내담자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소진(burnout)을 막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소수의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 자신의 상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과업중심적인 면에서 막 이게... 사실은 내담자를 문제 중심으로 파악을 하면 상담자도 굉장히 압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걸 꼭 뭔가 가지적인 효과가 나와 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거를 강점

을 놓치지 않게 되면 내담자를 좀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상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담자가 조금 더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상담자의 소진 예방, 참여자 7)

효과성 결정 요인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상담성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나 요인에 대해서는 (a) 상담자의 태도, (b) 상담자의 전문적 상담 역량, (c) 내담자의 준비도, (d) 내담자의 자원 정도와 같이 4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6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상담자의 태도

효과성 결정 요인 중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지목한 것은 상담자의 태도였다. 상담자가 인간 본성과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담자를 바라볼 때에도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특성보다는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특성을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다는 의견이 7명의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응답을 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인간 본성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내담자에게 뿐 아니라 상담자 자신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의 강점 파악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담자의 인간관과 더불어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참여자들도 4명 있었는데, 이들은 강점 발견이 쉽지 않은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상담자의 자세

표 6. '효과성 결정 요인' 영역의 범주와 사례 빈도

범주	하위범주	사례 빈도
상담자의 태도		전형적(10)
	상담자의 긍정적 인간관	전형적(7)
	상담자의 인내와 끈기	변동적(4)
상담자의 전문적 상담역량		전형적(8)
	강점과 자원 활용에 관한 상담자의 전문성 수준	전형적(6)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능력	변동적(4)
내담자의 준비도		변동적(4)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	변동적(3)
	내담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	변동적(2)
	내담자의 수용적 태도	변동적(2)
내담자의 자원 정도		변동적(3)
	내담자의 학업능력	변동적(3)
	내담자의 사회적 자원	변동적(2)

가 강점과 자원 활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결국은 내담자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생각해보면 맞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중심으로 가고 잘 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중략]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방향과 철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볼 때도 저는 동일한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자의 긍정적 인간관, 참여자 11)

상담자의 전문적 상담역량

강점과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상담자 요인으로 8명의 참여자들이 꼽은 것은 상담자의 전문적인 상담역량이었다. 하위범주별로 살펴보면, 강점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를 평가하고 실제로 상담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힌 참여자들의 수가 전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수준을 강조한 참여자들은 강점과 자원 활용을 위한 지식과 기술 획득을 위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명의 참여자들은 내담자와 신뢰롭고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강점과 자원 활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내담자와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강점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려는 상담자의 노력이 내담자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장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상담자의 수련수준이나 상담자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상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련도 많이 받고 전문성이 계속 발달을 하면 상담과정 중에서 아이가 말하는 의미 있는 말들 캐치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 지각능력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내담자의 어떤 욕구 파악도 빠르고, 그 아이의 어떠한 심리적 내면의 의미도 빨리 캐치도 되고, 그 아이가 말하는 어떠한 성공경험도 또 빨리 하고, 그 아이가 말하는 부정적인 어떤 부분도 그걸 긍정적으로 상담자가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재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일단 수련인거 같구요. (강점과 자원 활용에 관한 상담자의 전문성 수준, 참여자 1)

내담자의 준비도

상담자 요인에 비해 강점과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내담자 요인을 언급한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3명의 참여자들은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할수록 강점 활용이 용이해 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태도가 내담자의 발달적 수준이나 성숙도와 관련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2명의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을 인정할수록, 상담자를 포함한 타인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수용할수록 강점과 자원 활용의 효과성은 커진다고 생각하였다.

저는 시기 문제도 좀 중요한 거 같긴 해요. 일단 타이밍인데요. 모든 애들이 한다고 다 변화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인데요. [중략]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잘 되고 본인도 잘 인식하고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더 효과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애랑 고1 애들하고 얘기 할 때는 정말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뭐 내담자 연령이랑 성숙도의 차이 인거 같구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 참여자 4)

내담자의 자원 정도

소수의 참여자들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자 환경적 압력이라 할 수 있는 학습면에서 내담자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상담을 통해 아무리 다른 측면의 강점과 자원이 있음을 강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그러한 강점과 자원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명의 참여자들은 사회적 자원 특히 부모의 지지가 있어야 상담과정에서 강점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상담자를 통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강점과 자원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의미는 없어지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다.

어려움 혹은 장애 요인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이나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은 모든 질문 중 가장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참여자들의 반응은 (a) 강점 중심 접근이 효과적이지 못한 내담자 집단, (b) 강점 중심 접근이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 (c) 상담환경의 문제와 같은 3개의 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강점 중심 접근이 효과적이지 못한 내담자 집단

어려움이나 장애 요인에 관해 등장한 가장 지배적인 범주는 강점 위주의 상담접근이 효

과적이기 어려운 내담자 유형과 관련된 것이었다. 3개의 하위범주가 전형적인 수준의 빈도를 보였는데, 첫번째는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무기력과 우울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아무 것도 할 의욕이 없는 내담자는 강점과 자원 활용을 포함한 어떠한 긍정적인 개입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두번째는 상담회기 내내 최소한의 언어반응만 보이며 침묵하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이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거나, 상담자의 탐색적, 공감적 반응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상담 참여 의지가 부족한 비자발적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점과 자원 활용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이었다.

표 7. '어려움 혹은 장애 요인' 영역의 범주와 사례 빈도

범주	하위범주	사례 빈도
강점 중심 접근이 효과적이지 못한 내담자 집단	무기력하고 우울한 내담자	전형적(8)
	비자발적(적대적) 내담자	전형적(8)
	정신과적 증상이 심한 내담자	전형적(7)
	부정적 자기상이 강한 내담자	변동적(4)
	중독문제를 가진 내담자	변동적(3)
	자기애적 성향 혹은 조증을 보이는 내담자	변동적(3)
	진로성숙도가 낮은 내담자	변동적(1)
강점 중심 접근이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	열악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내담자의 환경 조건	전형적(6)
	위기상담	변동적(2)
	상담환경의 문제	전형적(6)
상담환경의 문제	강점 중심 접근에 대한 교육 부재로 인한 상담자 역량의 부족	변동적(5)
	편향된 강점 평가 문화	변동적(2)
	제공가능한 상담회기수의 제한	변동적(2)

세번째는 정신과적 진단과 약물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심리장애를 가진 청소년 내담자들에게는 강점과 자원의 탐색조차 불가능했으며 그러한 시도 자체를 회의적으로 본다는 시각이었다.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를 보인 4개의 하위범주 중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꼽은 내담자 유형은 부정적인 자기상이 지나치게 강해서 상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수용하기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이었다. 또한, 3명의 참여자들은 인터넷 중독과 같은 중독문제의 경우,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적 개입이 요구되므로 강점과 자원의 탐색과 활용이 우선시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과시적이거나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한 내담자의 경우, 강점 중심의 상담이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WEE Class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특이하게도 진로성숙도가 낮은 내담자에게 강점 중심의 상담접근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진로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하였다.

많이 무기력 하고 많이 우울한 애들은 사실은 강점이다 아무리 지지를 해도 힘들니까... [중략] 그런 아이들을 제가 좀 많이 아팠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쓴 거 같은데, 오랫동안 많이 우울했던 아이들 그럴 때는 사실 잘 안 된 거 같아요. (무기력하고 우울한 내담자, 참여자 6)

비자발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거 같아요. 동기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장점이나 자원 찾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겉으로만 하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이들은 거부적인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할려면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비자발적 내담자, 참여자 8)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해결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많이 맞추게 되는 거 같아요. 틱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그 다음에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었는데요.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다거나 손을 너무 심하게 씻어서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장애나 문제에 너무나도 극대화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서... (정신과적 증상이 심한 내담자, 참여자 3)

강점 중심 접근이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

이 범주에는 강점과 자원 중심의 상담 접근을 어렵게 하는 환경적, 상황적 요인을 제시한 상담자들의 반응이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절반의 청소년 상담자들은 가정 환경과 같은 주변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내담자에게는 강점 위주로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명의 참여자들은 자살위험에 놓여 있는 청소년과 같은 위기상담 사례의 경우, 강점 중심의 상담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가족 자원이 아주 열악하면은 물론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 아이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아이도 있었어요. 애는 정말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 부모 형제 다 열악한데도 이 아이는 뭔가는 보전되어 있구나. 이 아이 안에 이런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이 열악하면 이 아이도 힘을 못 받더라구요. 그런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구요. (열악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내담자의 환경 조건, 참여자 10)

상담환경의 문제

앞서 기술한 2가지 범주가 내담자 요인과 관련된 것인데 반해, 이 범주에는 상담자 교육 현실이나 상담이 수행되는 장면의 장애 요인에 관한 응답 내용이 포함되었다. 5명의 참여자들은 상담자 교육이 지나치게 문제나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상담전략과 개입 속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상담을 의뢰한 교사나 부모가 아이의 문제 행동이 교정되었거나 제거되었는지를 상담 효과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강점 위주로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상담실이나 지역의 청소년상담 기관에서는 무료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 상담으로 끝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현실 때문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요하는 강점 위주의 상담이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18세 정도 이후의 성인들 대상으로 한 상담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그 다른 연령 이제 제일 어렵다는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그 아이들한테 자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찾아주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그런 과정들은 만약에 상담자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주로 하는 현장에 갈 거라면 우리가 그걸 미리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상담자들한테는 그런 쪽으로 수련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점 중심 접근에 대한 교육 부재로 인한 상담자 역량의 부족, 참여자 8)

학교 안에서 인정하는 장점을 학습능력, 학업능력 그리고 또래관계 형성기술 예를 들어서 예의 바른 거, 성실성 이런 식의 어떤 강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는 강점들만 인정이 되고 다른 어떠한 것들은 약간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렇다 보면 발견이 더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중략]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시각에서 또 바라보는 경우도 많은 거 같고 그러다 보면 진짜 사소하게 청소를 잘 해요.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우선시 되는 거죠. 다른 것들 뭔가 성과를 연연하는, 우선시되는 문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것을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편향된 강점 평가 문화, 내담자 4)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12명의 전문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일대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CQR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보여주는 다양한 주제들이 산출되었다.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강점과 자원의 활용을 중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상담자들은 자신의 상담사례를 예로 들면서 강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상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 중심의 상담접근이 청소년 내담자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강점 중심의 상담을 이끌게 되었다는 진술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인터뷰 내용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상담자들은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초심자 시절에는 문제 행동을 제거 혹은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지만 결국 그것이 의도한 치료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경험이 쌓이면서 내담자의 내적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청소년 상담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직접적인 상담경험 이외에 슈퍼비전, 강의, 상담관련 서적 등을 통한 간접 학습경험 역시 강점과 자원 활용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전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슈퍼비전 과정에서 내담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상담에 활용하는 훈련을 받은 것이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

담자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상담은 장기 상담을 요하는 역동 중심적, 통찰 중심적 접근보다는 단기 상담을 취하는 행동변화 중심의 접근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강점 중심의 상담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내용은 인지적으로 성찰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 초기의 내담자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역동 중심적 상담접근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학자들(예, Murphy, 2008)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주목할 점은 단기적으로 청소년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강점과 자원 활용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상담자들의 신념이 이러한 결과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록 1명의 참여자에게서만 도출된 주제이지만 청소년 상담은 궁극적으로 진로문제로 귀결되는데, 진로문제를 다루기 위해 내담자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증언도 진로발달 및 상담의 주요 이론들이 긍정심리학의 철학적, 실행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Magyar-Moe, Owens, & Conoley, 2015)과 일치한다.

강점과 자원 파악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자들은 상담 초기의 면담과 관찰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상담자가 상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강점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점 중심의 상담에 관심을 둔 상담자들로 인터뷰 대상을 국한시킨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상한대로 심리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고도 전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면담과 관찰 및 심리검사가 일반적인 심리평가의 3가지 주요한 요소(천성문 등, 2015)임을 감안한다면 상

담자들이 강점과 자원 파악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평가 과정을 거친다기보다 이를 내담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담자의 부모, 교사, 친구들에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구한다는 진술은 대부분 학교 내 상담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에게서 나왔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내담자 이해가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상담의 고유한 장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내담자의 권리(Welfel, 2006)를 생각할 때, 이러한 관행에는 윤리적인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담자와의 협동 작업’과 ‘상담자 개인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파악’이라는 2가지 범주는 Gelso와 Woodhouse(2003)가 제시한 강점에 대한 개념화 과정과 일치하는데, 내담자와 직접적으로 강점과 자원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경우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3가지 범주와 구별되어 분류되었다. 사실 이 2가지 범주도 서로 구별되는데, 전자는 내담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과제를 줌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돕는 방법인데 반해, 후자는 자신의 단점이나 당면한 문제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 이면에 있는 긍정적인 특성이나 의미를 발견하도록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내담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협동적인 작업을 통해 내담자의 내적 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미국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Scheel 등(2013)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인터뷰 질문에 대해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상담목표와 전략 수립 및 개입 실행에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당면문제를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진술을 담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점과 자원을 탐색하고 적용하는 작업을 상담목표에 포함시키며, 상담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장점을 현실생활에서 직접 검증해 보도록 격려하여 그러한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담자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담목표를 설정한다는 참여자들의 진술은 Whitmarsh와 Mullette(2009)가 제시한 SEARCH 모델의 요인과 일치한다.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언어적으로 지지해 주거나, 단점 이면에 존재하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주거나, 과제를 통해 성공적 경험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깨닫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응답도 전형적이었는데, 이러한 응답은 Gelso와 Woodhouse(2003)가 개인상담 시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개입 행위로 제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상담목표와 전략 구축에 활용한다는 입장은 내담자의 당면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반면, 이 범주는 내담자로 하여금 내면의 자산을 깨닫도록 도와주어 임파워먼트(empowerment)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적 준비상태를 촉진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초심상담자가 언어적 지지의 방법에 의존하는 반면 숙련상담자는 강점 실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권혜경과 이희경(20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들의 연구가 청소년 상담자가 아닌 일반적인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담자들의 전반적인 강점 활용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들의 참여자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숙련상담자에 해당되는데, 그들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자들이 언어적 지지, 과제를 통한 강점 강화 및 인지적 재구성을 거의 유사한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 간의 강점 활용 방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상대적인 빈도는 낮았지만, 주변인들이 내담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상담자가 직접 그들에게 내담자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은 환경적 영향이 절대적인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Kenny, 1996)을 고려할 때, 청소년 상담에서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방법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담자들은 상담과정 및 성과 측면에서 다양한 이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담과정에 있어서는 라포 형성을 촉진하고 내담자의 상담동기를 향상시키며 내담자에게 바깥세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긍정적 관계를 경험하게 해 줌으로써 탄탄한 상담관계 형성의 촉매제로 작용한

다는 보고가 일반적이었다. 청소년 상담이 부모나 교사에 의해 의뢰되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Brodsky, 2011) 초기 관계형성의 중요성이 매우 지대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는 청소년 상담의 경우 상담자에게 수용되는 경험이 내담자가 상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주요한 기여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 양미진과 이영희(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Smith(2006)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10단계의 상담모델에서 ‘치료적 동맹 형성하기’를 1단계로, ‘내담자의 강점 확인하기’를 2단계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강점 확인과 활용이 관계 형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어 이 모델의 문화적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점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변화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상담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강점과 자원 활용이 유익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관계 형성과 더불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그 결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은 8명의 미국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Scheel 등(2013)의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다. 효과적인 상담전략 구축에 기여한다는 의견은 2명의 참여자들에게서만 언급되었는데, 앞서 활용방법에 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복되는 응답을 피하기 위해 재차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해석된다.

상담성과 측면에서도 강점과 자원의 활용은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결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담자에게는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적 자산을 발견하도록 해 주었고, 자신의 모습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전반적인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이 대다수 참여자들의 요지다. 이는 Smith(2006)의 상담모델에서 4~6단계인 ‘희망 고취하기’, ‘유능감 기르기’, ‘힘 북돋우기’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강점 중심 상담의 핵심적인 목표와 부합하는 상담성과라 할 수 있다. 내담자에게 주는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급된 빈도가 낮긴 하였지만, 상당수의 상담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내담자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심리적 소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상담자로서의 효능감 역시 높아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강점과 자원 활용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참여자들은 상담자 요인으로는 상담자의 태도와 전문적 상담역량, 내담자 요인으로는 내담자의 준비도와 자원 정도를 지목하였다. 상담이론에 따라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는 점(천성문 등, 2015)을 고려해 보면,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은 상담자의 이론적 정향에 따라 강점과 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물론 그러한 내담자의 내적 자산을 다루는 효과성 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강점과 자원 파악 및 활용에 관한 상담자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는 응답도 전형적이었는데, 이는 상담자의 긍정적인 인간관만으로는 청소년의 강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에는 상담자 훈련과정에서도 강점과 자원을 다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일반적인 상담 지식 및 기술과는 차별화되어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내재해 있다.

상담자 요인이 일반적이거나 전형적인 수준의 빈도를 보인 반면, 내담자 요인은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강점과 자원 활용의 성패는 내담자보다 상담자 변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담자 요인 중 내담자의 준비도에 대한 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상담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와 같은 태도적 요인 뿐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인지적 성숙도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점과 자원 활용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범주에서 논의한 내용과 결합해 볼 때, 내담자의 태도적 요인은 결국 상담자의 강점과 자원 활용 의지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적 요인은 Scheel 등(2013)의 연구에서도 강점 중심의 상담을 용이하게 해주는 내담자의 특성으로 소수의 참여자들에 의해 진술된 바 있다. 인지적 성숙도는 단기간의 개입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뷰 내용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이 요인이 강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기보다 강점 활용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내담자의 학업 능력이나 사회적 자원 역시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혜

성 등, 1996)을 고려할 때, 강점 활용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최적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강점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기에 어렵거나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참여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내담자 요인을 꼽았는데, 그들은 특정한 장애나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강점 위주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정서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 있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담 참여를 거부하거나, 혹은 정신과적 처치를 요하는 심리장애를 보이는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강점과 자원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전형적이었다. 내담자의 자아상이 부정적이면 강점과 자원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은 강점과 자원 활용이 내담자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참여자들의 증언과 얼핏 보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참여자들의 뉘앙스를 참고해보면 부정적인 자아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강점 중심의 상담이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자기애적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거나 조증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 내담자에게는 강점과 자원 활용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은 Scheel 등(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내담자들은 과대하게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강점에 대한 강조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한 것 같다. 내담자의 문제 유형에 따라 강점 활용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은 Scheel 등(2013)의 연구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가 그들이 제시한 내담자 유형과 문제 리스트를 보다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내담자 요인을 강조한 참여

자들의 목소리는 강점 활용을 중시하는 상담자들이 상담 초기의 내담자 평가 과정에서 특히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절반에 가까운 참여자들은 지지적이지 않은 부모의 특성이나 가정환경과 같은 내담자의 환경 요인도 강점 중심의 상담을 이끌어 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사회적 자원이 강점 활용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인 강점 활용을 위해서는 부모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상담자 교육의 실태나 상담 장면에서 오는 어려움을 장애요인으로 꼽은 참여자들도 절반이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상담목표와 전략 수립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개입이나 기법 사용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상담자 훈련 과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상담자의 전문성이 강점과 자원 활용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한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강점 중심의 상담에 대한 상담자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강점과 자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 지침이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데, 강점 중심의 상담을 이끌어가는 상담자들조차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특정한 긍정심리학적 상담이론이나 모델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Magyar-Moe, Owens와 Scheel(2015)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학업이나 또래관계 능력과 같은 특정한 강점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상담의 효과를 판단하는 편향된 학교 문화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적은 상담의 범

위를 넘어 강점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긍정심리 개입(Watersa, 2011)을 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상담회기수의 제한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단기상담이라는 청소년 상담의 특성상 강점과 자원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진술과 정확히 대립된다. 각각을 언급한 참여자들이 상이했기 때문에 단기상담이 강점과 자원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는지 혹은 어렵게 하는지는 향후 연구문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 기반의 한국적 청소년 상담 모델이 부재하여 상담자 훈련 과정에서 외국의 상담모델들이 문화적 타당성의 증거 없이 교육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의 실증자료는 한국 청소년에 적합한 상담 전략과 기법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는 강점 기반의 개인상담 과정에 대한 범주(categories)나 코딩 체계(coding systems)를 만드는 내용적 토대로 사용될 수 있어, 관련된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강점과 자원 활용의 효과성 결정 요인과 어려움 혹은 장애요인들은 대단위 표본을 대상으로 강점과 자원 중심 청소년 상담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향후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자, 전문상담교사, 일반 교사 등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진행할 때 그들의 강점과 자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청소년 상담 이론이나 모델들이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인상담 이론과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청소년 상담자들이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연구물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조명한 전문상담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청소년 상담자들은 자신의 상담방법을 성찰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어떻게 찾고 활용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탐색적인 시도의 성격을 지니며, 그 결과 역시 결론적인 시사점을 주기 보다는 예비적인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상담자들에게 유용한 실제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한 설문 구성을 통해 대단위 표집의 양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청소년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한 실제 상담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담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자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주제가 도출되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참여자 수로 인해 상담 장면별(예, 학교, 지역사회, 병원)로 강점과 자원 활용에 대

한 인식과 경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파악하지 못했는데, 상담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요소가 상담자의 상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면별 표집을 통해 주제의 구조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강점과 자원을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지 않았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개념적 구분 없이 두 용어를 혼용한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강점을 내담자의 내적인 긍정적 특성으로 자원을 환경적인 강점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인터뷰 분석 내용의 일부를 보면 강점과 자원 활용의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 이후 인터뷰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터뷰 대상의 선정기준과 인터뷰 질문 내용 속에는 청소년 개인상담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방향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가정의 가정이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강점과 자원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정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편향을 막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독립적인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여 강점과 자원 활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권혜경, 이희경 (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

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397-424.

김혜숙, 공윤정, 박한샘 (1996). 청소년상담모형 개발연구II: 비협조적 내담자상담.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양미진, 이영희 (2006).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1-20.

이혜성, 이재창, 금명자, 박경애 (1996). 청소년 개인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임영진 (2010). 성격강점과 긍정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천성문, 이영순, 박명숙, 이동훈, 함경애 (2015).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3판). 학지사.

Benard, B. (1991).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school, and community*. San Francisco: Far West Laboratory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35781)

Berk, L. (2004).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Boston, MA: Allyn & Bacon.

Brodsky, S. L. (2011). *Therapy with coerced and reluctant cli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oks.

Chazin, R., Kaplan, S., & Terio, S. (2000).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brief treatment with culturally diverse clients. *Crisis Intervention and Time-Limited Treatment*, 6, 41-45.

Conyne, R. K. (2004). *Preventive counseling*. New York: Brunner-Routledge.

Creswell, J. W., Hanson, W. E., Clark, V. L. P.,

- & Morales, A. (2007). Qualitative research designs: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5, 236-264.
- Gelso, C. J., & Woodhouse, S. (2003). Toward a positive psychotherapy: Focus on human strength. In B. W. Walsh (Ed.), *Counseling psychology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pp. 171-1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erstein, L. H. (2006). Counseling psychology's commitment to strengths: Rhetoric or realit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 276-292.
- Hill, C. B.,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572.
- Kaczmarek, P. (2005). Counseling psychology and strength-based counseling: A promise yet to fully materializ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 90-95.
- Kaczmarek, P., & Riva, M. (1996). Facilitating adolescent optimal development: Training consider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 400-432.
- Kazdin, A., & Weisz, J. R. (Eds.). (2003).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Guilford Press.
- Kenny, M. E. (1996). Promoting optimal adolescent development from a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framework.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3), 475-481.
- Keyes, C. L. M., & Lopez, S. J. (2002). Toward a science of mental health : Positive directions in diagnosis and interventions.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45-62).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ampropoulos, G. K. (2001). Integrating psychopathology, positiv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56, 87-88.
- Lopez, S. J. (2008). The interface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positive psychology: Assessing and promoting strengths.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th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Lopez, S. J., & Edwards, L. M. (2008). The interface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positive psychology: Assessing and promoting strengths.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th ed., pp. 86-99).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Magyar-Moe, Owens, R. L., & Conoley, C. W. (2015). Positive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counseling: What every counseling psychologist should kno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3(4), 508-557.
- Magyar-Moe, Owens, R. L., & Scheel, M. J. (2015). Applic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in counseling psycholog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3(4), 494-507.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A. M., & McWhirter, E. H. (1998).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approach* (2nd ed.).

-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Meara, N., & Myers, R. A. (1999). A history of Division 17 (Counseling Psychology): Establishing stability amid change. In D. A. Dewsbury (Ed.), *Unification through division: Histories of the division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9-4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ongrain, M., & Anselmo-Matthews, T. (2012). Do positive psychology exercises work? A replication of Seligman et al. (2005).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 382-389.
- Murphy, J. J. (2008). *Solution-focused counseling in schools*.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Romano, J. L., & Hage, S. M. (2000). Prevention and counseling psychology: Revitalizing commitments for the 21st centu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8*, 733-763.
- Rooney, R. H. (1992). *Strategies for working with involuntary clien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pp, M. (2006). The strength-based model for counseling at-risk youth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 108-117.
- Scheel, M. J., Davis, C. K., & Henderson, J. D. (2013). Therapist use of client strengths: A qualitative study of positive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3), 392-427.
- Scheel, M. J., Seaman, S., Roach, K., Mullin, T., & Blackwell-Mahoney, K. (1999). Client implementation of therapist recommendations: Predicted by client perception of fit, difficulty of implementation, and therapist influ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08-316.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Eds.). (2000). Positive psychology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mith, E. J. (2006). The strength-based counseling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 13-79.
- Wagner, W. G. (1996). Optim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What is it and how can it be encourage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 360-369.
- Walsh, W. B. (Ed.). (2003). *Counseling psychology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Watersa, L. (2011). A review of school-based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The Australian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ist, 28*(2), 75-90.
- Weersing, V. R., & Brent, D. A. (2003).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 overview of epidemiology, clinical manifestations, and risk factors. *Childhoo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5*, 827-841.
- Welfel, E. R. (2006). *Ethic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Standards, research, and emerging issues* (3rd ed.).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hitmarsh, L., & Mullette, J. (2009). SEARCH: An integrated model for counseling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48, 144-159.

Wong, Y. (2006). Strength-centered therapy: A social constructionist, virtues-based psychotherap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3, 133-146.

원 고 접 수 일 : 2016. 02. 13.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4. 13.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4. 15.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Counselors on the Use of Adolescent Clients' Strengths and Assets in Individual Counseling

Yoojin Jang

Departmen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professional counselo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the use of adolescent clients' strengths and assets in individual counseling. Twelve counselors, who hold an advanced-level certification in counseling and also had a minimum of five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with adolescent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via telephone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articipants stated that prior counseling experience, indirect learning experience in supervision and reading, and consideration on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led to their reliance on strengths and assets in individual counseling. To identify the client's strengths and assets, respondents typically utilized an initial interview and observation, a collaborative work with the client, or psychological tests. Also,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used the identified strengths and assets in establishing counseling goals and strategies. Support for the client's internal assets or attempt to change significant others' views on the client was reported as another way of using the client's strengths and assets, typically and variantly, respectively. Participants witnessed that strength-oriented counseling approaches benefitted both counseling processes and outcomes. In addition, a variety of themes regarding determinants on effectiveness of and barriers to the use of strengths and assets emerged from the data.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strengths and assets, adolescents, individual counsel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